



## 미 증시, PPI 둔화 등 인플레이 및 긴축 부담 완화로 상승

### 미국 증시 리뷰

13 일(목) 미국 증시는 중국의 수출입 부진에도, 생산자물가(PPI) 둔화, 제임스 블라드 총재 사임 소식으로 인한 달러 약세 및 금리 하락에 힘입어 상승 마감(다우 +0.1%, S&P500 +0.9%, 나스닥 +1.6%). 업종별로는 에너지(-0.4%), 헬스케어(-0.0%)를 제외한 커뮤니케이션(+2.3%), 기술(+1.5%), 경기소비재(+1.1%) 등 전업종이 강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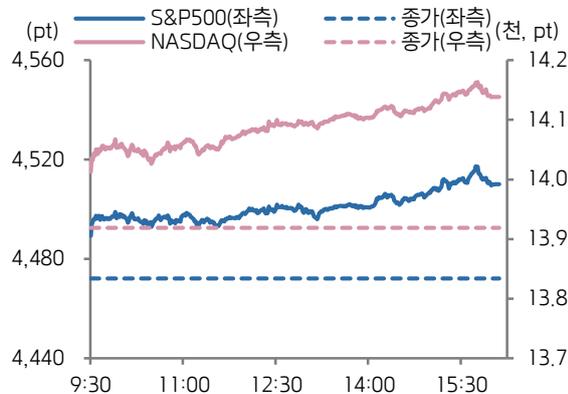
미국의 6월 생산자물가는 0.1%(YoY)로 전월(0.9%) 및 컨센(0.4%)을 큰 폭 하회하면서 2020년 9월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을 기록. 코어 생산자물가도 2.4%(YoY)로 전월(2.6%) 및 컨센(2.6%)에 비해 낮게 발표되는 등 전일 CPI에 이어 미국의 전반적인 인플레이션 압력이 낮아지고 있음을 재확인. 신규실업수당청구건수는 23.7만건으로 전주(24.9만건) 및 컨센(25.0만건)을 하회.

중국의 6월 수출은 -12.4%(YoY)로 전월(-7.5%) 및 컨센(-9.5%)을 하회했으며, 6월 수입도 -6.8%(YoY)로 전월(-4.5%) 및 컨센(-4.0%)을 하회. 역기저효과, 대외 수입 수요 둔화 등이 전반적인 수출이 부진을 견인한 것으로 분석. 중국 해관총서 측은 글로벌 경기 회복세가 부진하며, 지정학적 갈등이 계속되는 등 중국의 무역이 성장하는데 있어서 도전에 직면해있다고 평가.

ECB의 6월 통화정책회의 의사록에 의하면, 위원은 6월에 추가 금리인상을 통해 긴축 기조를 강화하는데 동의한 것으로 알려짐. 또한 필요 시 7월 이후에도 추가 인상을 고려할 것이라는 견해도 유지했으나, 지표에 따라 금리인상을 중단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한다는 논의도 있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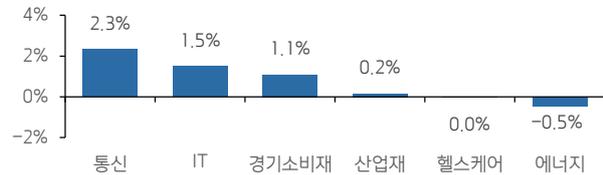
한국은행은 금통위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3.5%로 동결. 이창용 한은 총재는 기자회견을 통해 6명의 금통위원 모두 3.75%까지 인상가능성을 열어둔 상태이며, 연준이 2번 금리인상할지는 9월 FOMC까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 아울러 여러 금통위원들이 국내 가계부채 증가세를 우려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시기상조이며 설명 문제가 발생할 시에는 금리 뿐만 아니라 여러 옵션을 통해 대응할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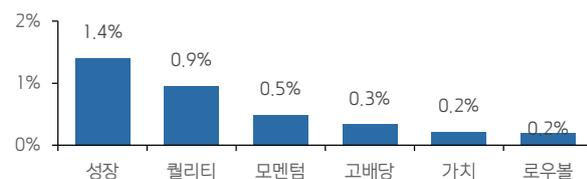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변화	지수	가격	변화
코스피	2,591.23	+0.64%	USD/KRW	1,274.31	-1.1%
코스피 200	341.13	+0.49%	달러 지수	99.76	-0.76%
코스닥	893.07	+1.5%	EUR/USD	1.12	-0.01%
코스닥 150	1,380.55	+1.58%	USD/CNH	7.15	+0.01%
S&P500	4,510.04	+0.85%	USD/JPY	138.05	+0%
NASDAQ	14,138.57	+1.58%	채권시장		
다우	34,395.14	+0.14%	국고채 3년	3.602	-10.3bp
VIX	13.61	+0.52%	국고채 10년	3.660	-9.7bp
러셀 2000	1,950.89	+0.91%	미국 국채 2년	4.630	-11.6bp
필라. 반도체	3,797.13	+2.03%	미국 국채 10년	3.763	-9.4bp
다우 운송	15,914.51	-0.01%	미국 국채 30년	3.901	-4.6bp
유럽, ETFs			원자재 시장		
Eurostoxx50	4,391.76	+0.72%	WTI	76.89	+1.5%
MSCI 전세계 지수	696.01	+1.13%	브렌트유	81.55	+1.8%
MSCI DM 지수	3,019.71	+1.09%	금	1963.8	+0.11%
MSCI EM 지수	1,020.53	+1.49%	은	24.77	+2.69%
MSCI 한국 ETF	66.97	+1.32%	구리	392.95	+2.2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 한국 증시 주요 체크 사항

<b>한국 ETF 및 야간선물 동향</b>	MSCI 한국 지수 ETF 는 +1.32% 상승, MSCI 신흥국 ETF 는 +1.3% 상승. 유렉스 야간선물은 0.27% 하락. NDF 달러/원 환율 1 개월물은 1265.06 원으로 이를 반영하면, 달러/원 환율은 9 원 하락 출발할 것으로 예상.
<b>주요 체크 사항</b>	1. 미 PPI 결과에 따른 미국 증시가 강세가 국내 증시 강세를 견인할 가능성 2.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 시장 금리 하락 등이 외국인 수급에 미치는 영향 3. 엔비디아 신고가 경신이 국내 반도체 기업에 미치는 영향

##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미국 6 월 PPI 는 YOY 0.1%(예상 0.4%, 전월 1.1%), 근원 PPI YOY 2.4%(예상 2.6%, 전월 2.8%), 운송까지 제외한 근원 PPI 역시 2.6% 기록하며 전월 2.8% 대비 하락. PPI 는 작년 3 월에 11.7%로 정점을 형성한 뒤 지속적으로 하락 추세 형성.

생산자물가지수까지 예상치를 하회하며 물가는 계속 둔화되고 있는 반면 실업수당 청구건수는 양호하게 나온 상황. 지표 발표 이후 10 년물 금리는 3.7%대까지 추가 하락, 2 년물 금리 역시 4.6%대까지 하락하며 하향 안정되는 모습을 보였고, Fed Watch 상 연말까지 7 월 이후 추가 인상을 할 가능성은 20% 초반에서 14%까지 하락.

즉 7 월 초 증시 상단을 제한한 시장금리 급등, 연내 2 회 추가인상 불확실성 등의 매크로 부담은 완화되며 나스닥 중심의 위험선호 심리 지속되었고, 반대로 금리 인상기에 강세를 보였던 에너지와 헬스케어 업종은 약세. 연준내 대표적인 매파 인사인 제임스 볼러드 연은 총재의 사임 소식과 맞물려 연준의 금리 인상 사이클이 7 월 이후 종료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재차 형성되고 있음. 다음주 중국과 미국의 실물지표 발표를 제외하면 7 월 FOMC 까지 매크로 이벤트가 부재한 만큼, 빅테크를 비롯한 미국 기업들의 실적장세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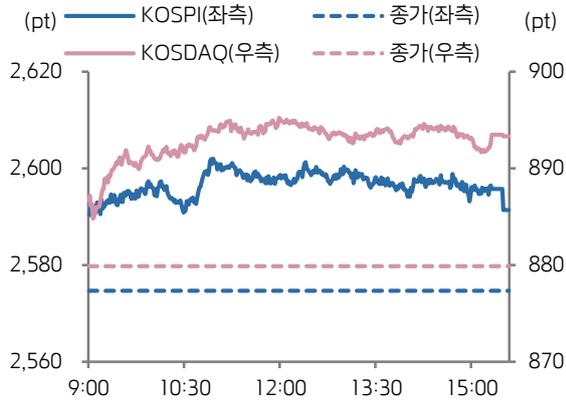
12 일(목) 국내증시는 컨센을 하회한 미 6 월 CPI 결과, 원/달러 환율 급락, 외국인의 선물 1 조 3000 억원 순매수에 힘입어 3 거래일 연속 상승 마감(KOSPI +0.64%, KOSDAQ +1.50%)

금일에도 연고점을 경신한 나스닥과 엔비디아 강세, 역외 원/달러 환율 급락 등에 힘입어 상승 출발할 전망. 업종단에선 저평가되어 있는 내수주, 건설, 정유화학 등 업종에 주목할 필요.

한편 중국은 6 월 수출 YoY -12.4%(예상 -10%, 전월 -7.5%), 수입 YoY -6.8% (예상 -4.1%, 전월 -4.5%) 기록, 수출은 2 개월 연속 둔화되며 20 년 1~2 월 이후 최저치 기록. 그러나 작년 3, 4 월 경제봉쇄에 따른 기저효과가 사라진 것에 기인하고, 연초 예상했던 수출 부진 대비 양호했고, 7 월말 정치적 회의의 부양책은 불가피하다는 해석 하에 중국 본토, 홍콩 증시 변동성은 제한되었음. 중국 정부는 경기부양을 위해 부실채권 선제 대응, 통화완화 정책, 빅테크 및 플랫폼 육성으로 방향을 전환. 특히 7 월 들어 알리바바, 바이두, 텐센트 등 중국 테크 기업들이 10%대 강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은 빅테크 규제가 끝났다는 분위기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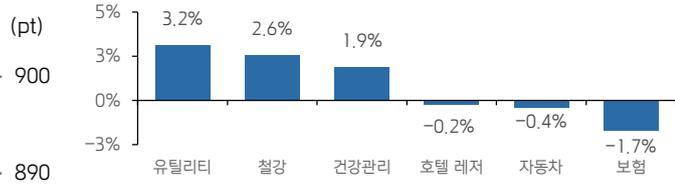
한은 7 월 금통위에서는 기준금리 3.5%로 4 회 연속 동결. 연준이 7 월 FOMC 에서 예상대로 25bp 인상 단행한다면 한미 금리차는 2%p 도달.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달러 환율은 1,270 원대까지 하락하며 강세를 보이고 있음. 중국의 지표 부진으로 인해 MSCI 중국 제외 신흥국 ETF(EMXC)의 발행좌수는 6 월이후 큰 폭으로 증가, 중국에서 이탈한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것은 원화, 엔화 등 환율이 방어되고 있는 요인. 대부분 삼성전자향 유입이라는 점은 우려스러우나, 7 월 들어 조정을 받았던 일본 증시 대비 국내 증시의 반등 강도가 더 강했던 점이나 코스닥에도 외국인 순매수가 유입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

KOSPI & KOSDAQ 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Compliance Notice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